

보살의 길

2004년 겨울호 제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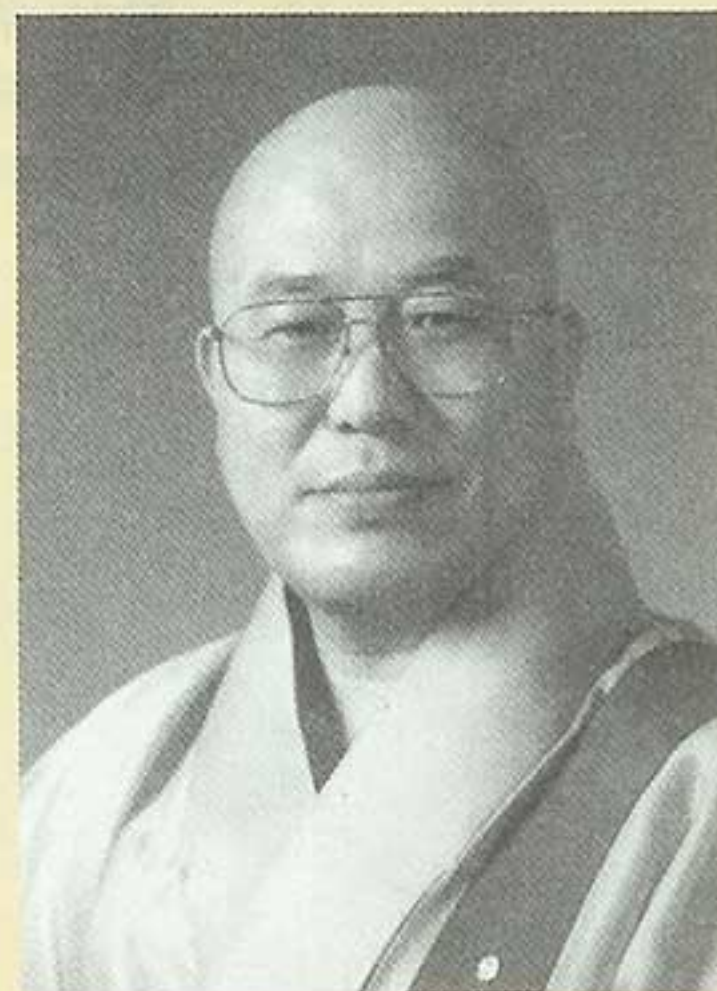


제1회 마음은 청춘! 즐거운 운동회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존경하는 후원자님께



원장 박현성(재근)

안녕하세요.

매년 보내는 해는 못 다한 어떤 미련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올해는 나라의 경제가 여의치 못해 서민들의 고충이 더 했던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도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시설도 살림살이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충분조건을 못 이루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활성화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은 평년과 크게 위축되지 않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많다보니 분출하는 욕구도 많으나 적절히 대처하여 어르신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후원자님들의 나눔의 정과 깊은 관심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해의 희망을 바라며 역경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乙酉년에는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으며 아울러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임직원들은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회복지의 사명을 기억하고 여러 후원자님의 뜻을 새겨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새해에는 후원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하시는 일에 만복이 있기를 우리 모두는 기원합니다.

을유년을 맞이 하면서



사무국장 진 관

안녕하세요!

내가 조실부모해서 그런지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친구를 보면 훈훈한 느낌을 받는다. 그 친구야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나로서는 한 가족의 따뜻함과 믿음과 사랑을 느낀다. 요즘 세태에는 현대식 고려장을 하는 가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세태를 종종 마스크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비감을 맛본다.

내가 양로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아래 위층 다니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부모의 정을 느껴보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남이 생각하면 자신을 위안하기 위한 이기심이라고 할 지 모르나 나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삭막해지고 하루를 보내는데 내 감성이 허락치 않아 매일 어르신들의 기침시간에 맞춰 '안녕하세요'가 진심으로 우러나서 외치고 다닌다. 내가 인사를 하면 어르신들은 반갑게 두손 합장하고 받아주시며 반가운 모습을 보이신다. 오히려 내 쪽에서 송구할 정도로 여러 번 머리를 숙이시며 합장을 하신다.

그분들은 자식이나 또는 동생이 아침인사를 하는 정으로 느끼시는 것 같다. 나는 그 모습에서 나의 조부모와 부모를 본다. '안녕하세요'라는 이 간단한 말을 통해 어르신들과 나 사이에 어떤 포근

함과 사랑, 존경의 감정이 교감한다.

헌데 재미있는 것은 할아버지께 드리는 인사와 할머니들께 드리는 인사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면 고개만 약간 숙이시며 별다른 표정이 없는 대신 근엄한 권위를 느끼게 된다. 아마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말없이 이끌던 그 깊은 사려가 밖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반대로 할머니들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반갑게 미소 지으시며 허리를 숙이신다.

거기에는 자애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탄말로 하면 할아버지들은 딱딱하고 할머니들은 살갑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들의 얼굴의 주름살로부터, 세월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그 한과 애증의 긴 세월을 마음 깊은 곳에 묻고 여생을 살아가는 당신들의 삶의 한쪽을 우리가 거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부터라도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여 가정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 가집시다!

보람을 느끼며...

밭맞사지 은행나무팀 유영희



우리 은행나무 밭맞사지팀은 사랑과 정성으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밭맞사지 봉사팀입니다.

처음 자원봉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부터 어떻게 봉사일을 시작해야 할지 참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가서 봉사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지만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밭맞사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부터 나는 줄곧 은행나무 봉사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팀의 활동 중에서도 혜명양로원 밭맞사지 봉사활동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뿌듯한 생각과 보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찾을 때마다 나보다 먼저 기억하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곤 하였습니다.

밭맞사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깨도 주물러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아휴 시원하다' 하시며 흡족해 하십니다. 밭맞사지를 받고 나면 꼭 할머니께서는 '수고를 끼쳐 어쩌나' 하시면서 자신의 방으로 가서 맛있는 간식거리를 가져와 우리보고 먹으라고 손까지 잡아끄신

답니다.

노환으로 인해 각종질환에 시달리시며 괴로워하시는 할머니.....

복지관, 경로당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뿌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받는 기쁨보다 베푸는 기쁨이 이렇게 흐뭇한 줄 미처 몰랐으며 봉사를 통해 작은 실천이 큰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몽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더 배워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먼저 앞장서리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달려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작은 베품이 제게는 큰 기쁨과 뿌듯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혜명양로원 여러 할머니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혜명훈매당



| 생일잔치 |

매달 어르신들 생신잔치가 있습니다. 푸짐한 음식은 없어도, 근사한 분위기는 아니라도 늘 즐겁고 기다려지는 생신잔치입니다. 이번엔 최고령의 남녀 어르신들이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세요.



| 수덕사, 덕산온천나들이(10.22) |

어르신들과 직원 50여 명이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덕산온천에서 온천욕을 하시고 맛있는 산채 비빔밥을 드신 후 유서 깊은 수덕사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을 끝으로 즐거운 나들이를 마쳤습니다.



| 청소년교회관심서약반단체봉사 |

대한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에서 청소년 60명이 단체봉사를 나오셨습니다. 얼굴맞사지, 발맞사지, 구두닦기, 목욕 등 하루일과를 어른들과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봉사하면서 느낀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대림라이온스 방문 |

대림라이온스에서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 조끼와 맛있는 간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갔습니다. 어른들이 조끼를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림라이온스 회원 여러분 복된 새해맞기 바랍니다.



| 마음은 처음 즐거운 운동회 |

제1회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양로원의 모든 어르신과 sk c&c 직원들이 봉사를 해주신 덕분에 처음으로 운동회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어찌나 열심히 잘하는지... 우리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마음은 모두 청춘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 백련사 잔치(12.16) |

매년 백련사에서는 12월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음식을 드시며 가수의 흥겨운 노래소리를 듣는 시간은 이제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백련사 운경스님과 신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장(11.30) |

월동준비로 양로원에서는 김장 1,400포기를 했습니다. 대한적십자회원분들과 안양213부대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수고하신 분들을 늘 떠올리며 감사드립니다.



| 소방교육(11.5) |

구로소방과출소 소장님이 나오셔서 어르신들과 직원에게 소방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교육을 기꺼이 허락하여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건강체조 |

매주 금요일 10시 금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오시는 서현정강사를 모시고 어르신들이 즐거운 건강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혜명동청

①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현성큰스님)
- 정원 : 80명(남:40명/여:40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② 입소대상

■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 결정)

■ 실비입소

- 입소대상 : 중산층 이하 가정으로, 부득이한 사
 정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
 한 어르신 (20%)

- 입소비용 : 보증금 : 5,056,000원
 월생활비 : 311,000원

③ 현재 입소인원

- 총 80명
- 할아버지 : 26(1)명
- 할머니 : 32(3)명
- 희망의 집(노숙인 쉼터) : 40명
- ※()는 실비입소자입니다.

④ 직원 현황

- 총 20명
- 원장/사무국장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전문상담원 1명/ 생활지도원 6명
- 위생원 1명/ 서무 1명/ 관리인 1명/ 조리원 5명

⑤ 직원 동정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구현주 생활지도원 선생
 님이 12월 3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어떤 곳이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
 로 바랍니다.

🌸 직원 교육 🌸

10월14~15일	사회복지시설 직원 연수	진관 사무국장 · 윤춘옥 간호사 박혜정 생활지도원 · 흥순의 위생원
11월17일	LPG 자동차 안전관리	윤춘옥 간호사
11월22일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김정희 사회복지사
12월13일	2004년말 정산교육	송진희 서무

한해동안 사랑의 온정을 전달하여 주신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불황에도 양로원이 늘 같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 늘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직원들은 후원자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어르신들을 성심껏 정성으로 봉양
 하겠습니다. 후원자님의 가내에도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원·봉·사·자

2004년 10월 1일~2004년 12월 20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미술교실), 문덕녀(대림미용실), 씨네티아정보통신,
 안양교도소이발(정재현·최건우), 영등포교도소이발(이동훈), 문일고, 통일고, 금천고, 시흥중,
 동일여고.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불자연수지침팀(이정조·
 김명숙·송안순·박경희), 윤순재(사랑의 모임 국악팀), 강남성모안과, 강서고, 동일여상 학생들,
 조기환(물리치료), 대한적십자회원들, 윤숙희(미술치료), 황은영(음악치료), 건강체조(최순남·
 서현정), 백산초등학교 6-2반, 문백엔젤스, 배미경(요가), 한국야쿠르트, 백련사 신도님들,
 안양 218군부대, 방일초등학교. 천종임(민요강사), 금천문화원 회원님들, 윤요한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구의회. 보리심보살. 김광태이사장. 보라매법당. 서서울고등학교. 금천푸드뱅크. 대영정공. 약사회.
 성원암. 동일학교. 성산식품. 남부경찰서. 213부대. 셋별어린이집. 금천우체국. 씨네티아. 새마을
 운동중앙본부회. 김주숙. 한독병원방. 사랑의실천국민운동. 던킨도너츠. 혜명보육원. 인천보살님.
 봉원사. skc&c국방부. 이묘희. 이종립. 현대체육. 아이유푸드. 이귀자. 보명사. 은행나무떡집.
 백련사. 현성정사. 이택종. 제주한림수산시장. 김동성. 서서울고등학교. 가족봉사단. 김종석친척.
 김성언친척. 도정아. 현성큰스님. KBS아나운서실. 독지가. 한국상호저축은행. 한순문.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방일초등학교.

지로후원

윤재순 60,000	문금자 20,000	이재임 6,000	윤영미 15,000	장영애 90,000	연홍구 30,000
이정조 20,000	구산 20,000	석혜영 20,000	이정호 10,000	구봉순 20,000	조관우 5,000
안정희 20,000	백승풍 20,000	이애자 20,000	김상범 20,000	구희근 20,000	이은정 20,000
서현정 30,000	명법사 20,000	임옥수 200,000	구충수 200,000	구희관 20,000	윤중영 60,000
보명사 200,000	구수미 50,000	박두영 50,000	케나다에드몬트제일장로회 200,000		

현금후원

한노협 1,945,000	한독병원 60,000	김주현 90,000	박성수 90,000	국영호 60,000	권기상 350,000
황재기 10,000	배승진 10,000	박정진 10,000	김은인 10,000	임경자 30,000	고영빈 10,000
박혜정 20,000	배춘자 100,000	이보일 500,000	한태규 100,000	김기영 300,000	
증권거래소 300,000		한국까르푸 341,070		음식중앙회 3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0,000		대림라이온스클럽 300,000		한국야쿠르트 150,000	

따 · 뚝 · 핫 · 손 · 길 · 을 · 기 · 다 · 림 · 니 · 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 · 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 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 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 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지로번호 : 7655940

지로계좌(우리은행) : 711-046904-13-012

우리은행 : 145 - 05 - 095018

예금주 : **혜명복지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하차

양로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www.hmtown.or.kr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